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 말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28일)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사단법인’ 상월결사 불교중흥 닻 올린다

12월 18일 서울 봉은사서 사단법인 창립총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회주 자승스님, 법인 이사장 맡아
‘상월순례단’ 및 ‘수미산원정대’에
‘상월포럼’ ‘상월아카데미’ 추가해
각 지역본부 두고 전국 조직 박차
‘대학생 불교 활성화’ 최우선 집중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창립을 새로운 출발로 삼겠습니다. 순례 공덕을 불교중흥과 사회평화에 회향하는 ‘상월순례단’을 필두로, 새인연맺기 ‘수미산원정대’를 바탕으로, 정기 모임인 ‘상월포럼’, 불교문화 프로그램 ‘상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결사’가 사단법인 창립을 통해 새해 적극적인 포교사업에 나선다. 기존 상월결사 순례와 수미산원정대와 함께 상월포럼, 상월아카데미 등을 통해 미래세대 포교에 뛰어든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2월 18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작금 불교는 포교가 가장 문제다. 상월결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생 포교”라며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이 소수에 불과하다. 어린이법회를 하여도 1~200명 이내로 모일 뿐이다. 중고등학교 법회는 더욱 심각하다. 종립학교에서 교법사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불교는 사람 몸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허리”라며 “하지만 대불련 수련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하고 대학생 불자도 과연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기존 신도들은 봉은사에서 수미산원정대를 통해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어린이법회와 대불련 법회는 형식적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법인에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불자모임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침몰해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상월결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불교중흥을 위한 정진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불법의 실현”이라며 “사바세계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수미산을 이루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법인 상월결사, 각계 인사 참여

상월결사는 순례기간 동안 사단법인 설립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이사장을 맡게 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 총괄본부 조직과 함께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에 지역본부가 설립된다.

지난 11월 1일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1월 24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12월 1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회에는 이사장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상월결사 총도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담화) 스님, 불교신문사장 삼조 스님과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이태경 상월결사문화특보,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도순례 이후 본격 활동 시작

상월결사는 사단법인 출범으로 새해부터 새롭게 ‘상월포럼’과 ‘상월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상월포럼은 상월결사가 진행하는 불자배가운동 새인연맺기 프로그램인 ‘수미산원정대’의 전국 조직화를 의미한다. 상월포럼에서는 매분기 정기포럼과 지역본부별 포럼, 각종 학술대회와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자료 발간을 진행한다.

상월아카데미는 상월결사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월결사 체험프로그램, 상월결사 학술연구, 유튜브와 SNS활성화, 회원사찰 홈페이지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으로 상월결사 기부금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가능해지며, CMS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도 새해를 맞아 이뤄질 예정이다.

박기련 사단법인 상월결사 정책기획단장(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인도순례를 마치고 오면 4월 상월결사 출범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2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소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이태원 참사 49재… “아픔 없는 곳으로”

12월 16일 조계사서 위령재 봉행
참사 희생자 가족 150여 명 참석해
영단에 영정 67명 위패 78위 모셔
화암 스님 집전으로 위령의식 엄수
5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영가 추모
진우스님 영가 · 가족에 한없는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 법문을 하고 있다.

“못다 핀 꽃들이여, 어여쁜 영령이여 무릎 꿇고 통곡하며 그대들 위해 빕니다. 우리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 다시 한 번 사랑하고 다시 한 번 꿈꾸고 다시 한 번 살아가는 좋은 목숨이시길 빕니다.” (시인 나태주 추모시 중)

폭설과 함께 찾아온 매서운 바람 속, 이태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지막 인사가 서울 조계사 경내에 울려 퍼졌다.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12월 16일, 조계사 경내에 운집한 500여 스님과 대중들은 합장한 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영단에는 유가족이 동의한 67명의 영정과 78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영하 8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동참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서원했다.

오전 10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노제와 함께 158번의 명종타종으로 49재가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 영단에 모시는 시련 의식 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영단에 헌향했다.

“꽃 같던 그대들을 떠나보내는 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깊이 아팠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건 그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비통한 현장 속에서도 그대들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었고, 그대들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추모사 후 나태주 시인의 추모시를 읊고 영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속세에 남은 애착을 씻어내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대령 관욕’ 의식에 이어 희생자들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의미의 바라춤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 법문을 통해 영가가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고득락(離苦得樂)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영가에 “이제는 미련과 집착을 놓고 평안한 피안의 업멸을 지어야 한다”며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도 다독였다. 진우 스님은 “영가는 영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마음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냉철한 마음이 돼야 한다. 평안한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영가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모두는 서로서로 연결돼 있는 인드라망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나의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다. 우리 모두는 영가와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위령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20여 분간 이어졌다. 회심곡과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유가족들이 차례로 영단에 올라와 헌화했다. 영정 앞에서 목놓아 우는 가족들의 모습에 49재에 동참한 이들 사이사이 조용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 故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유가족을 대표해 49재를 개최해준 조계종에 감사인사를 하고 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누나. 잘해준 게 없어 미안해. 누나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내가 싫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 알았어.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딸아.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승에서 모든 고통, 슬픔 다 버리고 부디 힘내서 잘 가.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이날 49재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종이옷을 태우는 소전의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2년 10대 뉴스 7면

다음호는 2023년 신년특집호 입니다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